

놀이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의 층위와 표출 미학

박 명 희*

차 례

1. 머리말
2.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 1) 상위 층위: 조부와 형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 2) 동위 층위: 부인에 대한 슬픔과 애도
 - 3) 하위 층위: 아우와 자식에 대한 애정과 기대
3. 감성 표출의 미학적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놀이 박상의 시에 나타난 가족으로는 조부 박소, 형 박정, 부인 진양유씨, 아우 박우, 그리고 두 아들 민제와 민중 등이다. 박상은 이들 가족과 관련해 총 16제 20수의 시를 남겼다. 본고에서는 이들 시를 ‘가족시’로 개념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의 전반적 특징과, 조선 중기 사림의 삶이 시 창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박상의 가족시는 대상에 따라 상위(조부·형), 동위(부인), 하위(아우·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자식)라는 세 층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층위에 따라 감성의 성격과 표출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상위 층위에서는 조부에 대한 감사와 형에 대한 그리움이 주를 이루며, 동위 층위에서는 부인의 죽음을 계기로 한 심화된 슬픔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하위 층위에서는 아우와 자식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비교적 안정된 감성으로 표출된다. 특히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는 감성 표출의 강도가 두드러진 작품으로, 박상의 정서적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기존 비평 자료를 바탕으로 박상 시의 미학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침울’의 미학이 핵심적인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감정을 절제하는 전통적 시학과 달리, 슬픔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박상의 가족시는 개인적 체험과 감정이 시적 표현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례로서, 조선 중기 사림 문학의 감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주제어: 놀재 박상, 가족시, 박정, 박우, <청복고비신씨소>, <몽백씨>, <협곡도 삼가>

1. 머리말

놀재 박상(1474~1530)은 광주의 芳荷洞(현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에서 태어났다. 박상의 집안은 원래 대대로 개성에 살았는데, 할아버지 朴蘇 때 지금의 충청도 대전 일대로 세거지를 옮겼다. 박소는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에 넷째 朴智興이 박상의 아버지이다. 박지흥은 세종 때에 진사가 되었으나 얼마 뒤에 세조가 일으킨 왕위 찬탈 사건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 벼슬을 포기하고, 처가가 있는 광주 봉황산 아래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하였다. 박지흥은 개성서씨와의 사이

에서 禎, 祥, 祐 세 아들을 두었다. 박상을 기준으로 박정은 7년 연상이고, 박우는 2년 연하이다. 아버지 박지흥은 훗날 좌찬성의 벼슬을 증직 받아 현재 찬성공이라 부르고 있고, 형님인 박정은 荷村이라는 호를 가져 하촌공, 동생인 박우는 六峯이라는 호를 가져 육봉공이라 부르고 있다.

박상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15세 때 아버지가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 박정의 나이는 22세였고, 박우의 나이는 13세였다. 이로써 박정이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두 동생들도 형님을 잘 따르고 받들어 학문 탐구에 정진하니, 학문이 나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송나라에 ‘父子三蘇(蘇洵·蘇軾·蘇轍)’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兄弟三朴’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박정은 그의 나이 32세 때 세상을 떠났다. 이때 박상의 나이는 25세였다. 형님이 세상을 뜬 뒤에 박상은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물론이요, 동생 박우까지 살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 박상도 동생에게 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박상의 보살핌을 잘 받은 덕분에 박우는 그의 나이 32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35세 때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에 벼슬에 나아간다.

한편, 박상은 우선 현령 柳宗漢의 딸인 晉陽柳氏와 혼례를 올린 뒤에 최소 3남2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박상의 「연보」 33세 조에 따르면, 박상은 진양유씨와의 사이에서 2남2녀를 두었다고 하며, 김해 부사를 역임한 장남 敏齊와 진사 차남 敏中을 언급하였다.¹⁾ 그런데 박상이 지은 <擬自悼賦> 小序에 따르면, “계해년 겨울에 딸이 죽었고, 지난해 여름에 딸과 아들이 죽었으며, 겨울에 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²⁾라 했으

1) 朴祥, 「年譜」 33세 조, 『訥齋集』 附錄 卷4, “淑人, 有美德淑行, 生二男二女, 長敏齊, 金海府使, 次敏中, 進士, 能世其業.”

2) 朴祥, <擬自悼賦> 小序, 『訥齋集』 卷1,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14-18쪽, (전략) “及癸亥冬, 哭女, 往年夏, 哭女與男, 冬又哭妻.” (후략)

니, 장남 민제와 차남 민중을 고려하면 원래 최소 3남2녀를 두었음에 분명하다. 이와 같이 박상은 진양유씨 사이에서 최소 3남2녀를 두었는데 1남2녀를 잃었고, 그리고 이어서 진양유씨마저 잃었다. 진양유씨를 잃은 박상은 河東鄭氏 생원 鄭稅의 딸과 다시 혼례를 올려 監役 일을 맡은 敏古를 두었다.

이상과 같이 박상은 위로 조부 박소와 부친 박지홍, 형 박정을 두었고, 아래로 아우 박우와 세 아들 박민제·민중·민고 등을 두었다. 그리고 부인 진양유씨와 하동정씨를 두었다. 15세 때 부친 박지홍을 여의고, 25세 때 형 박정마저 세상을 뜨자 박상은 홀로 된 모친을 모시며 아우와 자식들까지 건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녔을 것이다. 그 중에 특히, 홀로 된 모친을 위하는 마음은 컸다. 「연보」에 따르면, 35세 때 임피 현령, 39세 때 담양 부사, 44세 때 순천 부사 등 모친이 가까이 계시는 곳에서 벼슬살이를 했는데, 모두 스스로 원해서 그리 했던 것이다. 순천 부사 시절 처음에는 관아에서 모친을 직접 모셨으나 모친이 불편함을 느껴 다시 방하동 본가로 돌아가 가까이에서 시중들면서 冠帶를 풀지 않고 藥物은 입으로 맛보지 않고서는 감히 드리지 않았다. 당시 흥덕 현감으로 부임했던 박우 역시 본가에 와서 모친을 위해 약 시중을 하였다. 그러나 두 아들의 보살핌을 뒤로 한 채 박상의 나이 44세(1517, 중종12) 10월에 모친은 세상을 떠났다. 모친이 세상을 떴을 당시 박상의 모습을 「행장」에서는 “정축년(1517) 봄 순천 부사로 나갔다가 겨울 10월에 모친상을 당해 3년 동안 侍墓하였는데 禮文보다 지나치게 喪禮를 지켜서 뼈가 앙상할 정도로 몹시 슬피하여 지팡이를 짚고서야 일어설 수 있었다.”³⁾라 했으니, 마지막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朴祥, <行狀>, 『訥齋集』附錄 卷1, 『韓國文集叢刊』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326쪽, “丁丑春, 出守順天府, 冬十月, 丁內憂, 居廬三載, 執喪過禮, 哀毀骨立, 杖而後起.”

박상은 총 620제 1,200여 수에 이르는 시를 남겼다. 그중에서 위와 아래의 가족들을 돌보며, 기회가 닿으면 가족시 작품을 남겼는데, 총 16제 20수정도 된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박상의 시 가운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가족시’로 정의하고,⁵⁾ 이를 분석의 중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가족시’는 박상을 기준으로 대상의 위계에 따라 상위, 동위, 하위의 세 층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감성의 양상과 표출 방식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 첫 번째 상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위에 자리하는 조부 박소와 형 박정과 관련한 작품이고, 두 번째 동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과 수평적 위치에 놓인 진양유씨와 관련한 작품이며, 세 번째 하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아래에 자리하는 아우 박우와 두 아들 민제, 민중과 관련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층위의 가족시에 드러난 감성이 다른데, 이는 곧 박상이 각 층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각각 다르게 시로 드러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음 2장에서 이러한 세 층위를 구분해 각각 드러난 감성을 구명하고, 이어 3장에서는 감성 표출의 미학적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원만히 끝난다면,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의 전반적인 면모와 함께 조선 중기를 살았던 士林의 삶이 시 작품의 표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4) 가족시 16제 20수에 <의자도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문체가 賦로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어 한시로 포함시키기에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자도부>는 그 내용이 가족 전체의 哀史를 담고 있기에 자료로는 활용하였다.

5) 지금까지 이룩한 박상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물 중에 박상의 가족시를 연구한 경우는 박준규의 논문(『訥齋 朴祥의 詩文學論攷』, 『놀이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157-160쪽)이 있을 뿐이다. 다만 박준규는 <협곡도 삼가>만 집중 논의한 아쉬움이 있다. 또 다른 성과물로 박명희의 편역서(『박상의 생각, 한시로 읽다』, 도서출판 온샘, 2017)가 있다. 박명희는 편역서 제1장 ‘가족에 대한 추억과 사랑’ 부분에서 <의자도부>를 포함해 총 10제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2.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1) 상위 층위: 조부와 형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상위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로, <展祖考墓>, <夢伯氏> 등이 있다. 박상은 44세 때 순천 부사를 끝으로 한동안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는데, 1장 머리말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무렵에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모친상을 당한 뒤 3년 동안 시묘를 하였고, 시묘가 끝난 46세(1519, 중종14) 12월에 의빈부 경력, 선공감 정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46세 12월은 기묘사화가 막 끝난 시점이고, 사람들이 당한 禍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누구보다 알았던 박상이었기 때문에 벼슬이 주어졌다 하여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벼슬에 나아간 대신에 상소문을 마련하여 사화로 인해 쫓겨나간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였다. 그런데 자제와 친척들이 “상소문이 바쳐진다 하더라도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화를 더 엄중하게 할 뿐입니다.”라 말하니, 박상이 개탄하며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 말하고, 마침내 상소문을 불에 태웠다. 이 내용은 「연보」 46세 조에 나오는데, 기묘사화 때 사람들과 행동을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슴 속에 맺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47세 가을에 어사가 되어 호남 지역의 災害를 시찰하였고, 이어 48세 봄에 상주 목사를 제수 받았다가 그해 여름에 충주 목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상은 52세(1525, 중종20) 겨울 사도시 부정으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까지 충주 목사로 줄곧 있었는데, 어느 날 잠시 시간을 내어 懷德 貞民驛 남쪽 근처에 있는 조부 박소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였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지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단 나무 향기는 생기 넘치게 올라가니
슬픈 정령이 흰 구름에서 내리는 듯하네

紫檀香氣上氤氳
悽悽精靈下白雲

옹중의 늙은 몸은 비바람으로 추해지고	翁仲老身風雨醜
큰 비석의 메마른 면엔 성명이 향기나네	豐碑枯面姓名芬
시서가 있어서 과거시험을 계승했으니	桂科似續詩書在
조부님이 박 넝쿨 재배하느라 애쓰셨네	匏蔓栽培祖考勤
이제 충주 목사 되어 낮에 비단옷 입으니	今作芮州眞畫錦
두어 병의 관청 술은 명군한테서 왔네	數瓶官酒自明君 ⁶⁾

위 시의 시제를 풀이하면 <조부의 산소에 성묘하다>이다. 박상의 조부 박소는 은산 군사를 역임하였고, 이조 판서에 증직된 바 있다. 박상은 제목 소서에서 조부의 산소가 “회덕 정민역 남쪽 근처에 있다.[在懷德貞民驛南近]”라 했는데, 회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 지역의 옛 이름이다. 충주와 회덕은 같은 충청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니더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박상은 충주 목사 시절 틈을 내어 조부의 산소를 잠시 다녀갔던 것이다.

우선 수련에서 성묘를 왔다는 분위기를 냈다. 1구에서 말한 ‘紫檀香’은 자단 나무를 잘게 깎아서 만든 향을 말한다. 이 자단향이 생기 넘치게 위로 올라가니 그 향을 맡은 정령이 흰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듯하다라 말하여 마치 땅에 있는 박상과 하늘에 있는 조부가 만난 듯이 표현하였다. 이어 함련에서는 산소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1구에서 말한 ‘翁仲’은 무덤 사이에 세워진 石人·石獸 등을 가리키며, 2구의 ‘豐碑’는 공적을 적고 덕업을 기리는 거대한 石碑를 말한다. 그런데 옹중의 늙은 몸은 비바람으로 추해진 반면, 큰 비석의 메마른 면에는 성명이 향기롭다라 표현하여 옹중과 풍비가 서로 대조적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풍비에 적힌 성명은 역시 조부의 이름 박소로, ‘芬’ 자를 넣어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나는 듯하게 표현하였다. 경련에서는 조부 박소를 칭송하

6) 朴祥, <展祖考墓>, 『訥齋集』 卷4,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76쪽. 번역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발간한 국역 『놀이재집』을 참고했으며, 이하 번역도 동일함을 밝힌다.

며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였다. 1구에서 말한 ‘桂科’는 과거시험에 급제 한 것을 뜻하는 한자어로, 쯔나라 武帝 때 卻詵이 賢良對策에서 장원을 하고는, 소감을 묻는 무제의 질문에 “계수나무 숲의 가지 하나요, 곤륜산의 옥돌 한 조각이다.[桂林之一枝 崑山之片玉]”⁷⁾라고 답변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似續’은 선조의 遺業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시경』 <斯干>에 “선조를 계승하여 담장이 백도나 되는 집을 지었네.[似續妣祖 築室百堵]”라는 말에서 인용하였다. ‘詩書’는 시와 글씨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시경』과 『서경』 책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의미하든지 1구에서 박소가 남겨준 시서가 있어서 그로 인해 과거시험에 합격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 미련에서는 박상 자신이 충주 목사가 되어 비단옷을 입고 와 술을 올리게 된 것을 언급하였다. 시 말미에 “그때 동관이 술 두 병을 보내주어 제사에 쓰게 했다.[時同官 送酒二瓶備奠]”라 말한 소주가 있으니, 미련 2구에서 말한 ‘明君’은 곧, 술을 보내준 同官을 가리킨다.

이상과 같이 박상은 <조부의 산소에 성묘하다> 시를 통해 조부 박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첫 번째 상위 층위의 두 번째 시에서는 형 박정을 그리워하는 정감을 드러내었다.

한번 이별 후 가까이 하지 못해	一別無由近
할미새 나는 들관에 풀만 무성하네	鶻原草獨深
시서를 치운지 며칠이 되었던가	詩書埋幾日
형의 문필은 지금까지 그대로라	翰墨到如今
먼 곳까지 와서 꿈에 나타나시니	遠地來和夢
추운 밤에 거듭 마음이 슬퍼지네	寒宵重愴心
강남은 또 만 리의 먼 길이라	江南還萬里
일어나 앉아 옷깃에 눈물 흠뻑 적시네	起坐淚盈襟 ⁸⁾

7) 房玄齡 등 편찬, 『晉書』 卷52, 「卻詵列傳」

8) 朴祥, <夢伯氏>, 『訥齋集』 卷3,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46쪽.

이 시의 시제를 풀이해보면 <큰형이 꿈에 나타나>이다. 시제에 나온 큰형은 역시 박정을 가리킨다. 박상의 「연보」 25세 조를 보면, 박정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 자료가 나오는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촌공은 타고난 자질이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덕행과 기량이 순수하게 이루어졌으며, 문장과 학술을 뛰어나게 스스로 터득하여 어진 사우들이 그를 추종하여 말하기를 “몹시 뛰어나다.”라 하였다. 점필재가 호남 관찰사가 되어 예를 두터이 하여 대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조정에서 일할 그릇이다.”라 하였다. 공은 그로 인해 점필재와 교유하며 많은 지도를 받았다. 두 아우를 가르쳤는데, 모두 명망 있는 선비가 되었다. 당시에 일컫기를 “송나라에 부자 삼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형제 삼박이 있다.”라 하였다. 18세에 생원이 되었으나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저술은 병화에 잃어버렸고, <서석산부> 1편이 전한다.9)

위 내용에서는 총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박정의 자질과 덕행, 기량, 문장과 학술 등을 말하였고, 둘째 점필재 김종직과의 인연을 말하였으며, 셋째 박상과 박우 두 아우를 가르친 것을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18세에 생원이 되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 내용대로라면 박정이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지 않았다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런 큰일을 할 수도 있었고, 그토록 부친을 대신해 의지하던 형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으니 박상이 받은 슬픔은 깊었을 것이며, 그리움 역시 컸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간혹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박상이 형 박정 꿈을 꾸는 것도 바로 그 그리움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9) 朴祥, 「年譜」 25세 조, 『訥齋集』 附錄 卷4, “荷村公, 天資秀美, 德器純成, 文章學術, 超然自得, 賢士友相推之, 曰白眉之良. 估畢齋, 按湖南, 加禮以待, 曰真廊廟器也. 公因與從遊, 多受啓迪. 教訓兩弟, 俱爲名儒. 時稱宋有父子三蘇, 東國有兄弟三朴云. 十八, 生員, 不幸早世. 著述, 失於兵燹, 傳瑞石山賦一篇.”

박상은 <몽백씨> 詩題 다음에 소서를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형이 무오년(1498, 연산군4) 가을에 세상을 떠나 나와 서로 생사가 갈리는 시간으로 들어갔다. 이해 겨울 호남에서 서울로 간 지 닷새째 되던 날 꿈에 형이 보였고, 그 뒤에 또 세 번이나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형제간의 지극한 情理는 저승일지라도 눈바람 치는 길을 가는 나 그네를 염려해 주는 것과 같기에 그러한 것인가.¹⁰⁾

이 내용 대로라면 박상은 형 박정 꿈을 한두 번 꾸는 것이 아니다. 박정이 세상을 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형 꿈을 꾸었고, 그 뒤에도 무려 세 번이나 꿈을 꾸었다. 그래서 박상은 생각하기를 저승에서 형이 아우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한다. 이 소서는 박상이 형 박정이 왜 그리 꿈에 자주 나타나는지 그 까닭을 적은 것으로 직전에 인용한 시 내용을 통해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수련에서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형과 이별한 뒤로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할미새 나는 들판에는 풀만 무성하다라 하였다. 2구에서 말한 ‘鵲原’은 『시경』 <常棣>에서 유래한 鵲鵲在原의 준말로, 형제간의 우애를 뜻한다. 다시 말해 수련에서는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다는 것을 말하였다. 함련 두 구를 통해서는 형이 읽었던 책과 문필을 언급하였다. 책은 형이 세상을 뜬 뒤에 모두 치웠으나 문필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했으니, 형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경련에서 마침내 형이 꿈에 나타난 사실을 말하며, 2구에서 구체적인 감성을 나타내었다. 그 감성을 한자어로 ‘哀心’이 아니라

10) 朴祥, <夢伯氏> 小序, 『訥齋集』 卷3,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46쪽. “戊午秋, 捐館, 幽明入變炎涼. 當年冬, 自湖南至京師之五日, 入夢, 後又如是者三, 豈兄弟至情, 雖冥冥, 猶念客路風雪故歟?”

‘愴心’이라 했으니, 그 비통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애심’에 비해 ‘창심’은 그 슬픔의 정도가 비통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이다. 이어 마지막 미련 1구에서 형이 마치 날씨가 따뜻한 강남에 있는 듯이 말한 뒤에 슬픈 감성을 결국 눈물로 쏟아내고 말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미 세상을 뜬 형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마지막 미련을 통해 더 간절히 느낄 수가 있다.

2) 동위 층위: 부인에 대한 슬픔과 애도

동위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로, <夾谷悼 三歌>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은 그의 나이 33세 11월에 첫 번째 부인 진양유씨를 잃는다. 박상의 「연보」에 따르면, 유씨는 “아름다운 덕과 착한 행실[美德淑行]”을 지녔던 여인이었다. 이런 부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떴으니, 그 슬픔은 더욱더 깊었을 것이다. 박상은 그 슬픔을 다음에 인용한 <의자도부>에 그대로 나타내었다.

(전략)

계획은 실로 좋았으나 해내지는 못하고	計實勤而不究兮
갑자기 괴이한 꿈이 흉한 일 고했네	忽怪夢之凶謁
위급한 아내 구함을 어찌 멈추었을까	徵斷絃之曷休兮
영영 세상 떠난 것을 깨달았네	悟永拋乎琴瑟
때는 한 해 다 가지 않은 동짓달	瞻歲躔之未周兮
달의 두꺼비가 그 얼음 돌렸었네	蟾馭轉其冰轂
이십구 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였고	廿九年眞一瞥兮
아내는 옥고리를 버리듯 놓고 갔네	委環佩其若遺
저승길 떠난 것 날로 멀어짐 서러우니	悼幽蹤之日遯兮
외쳐도 들리 리 없고 불러도 알지 못하네	號無聞而招不知
하늘과 땅이 오래 간다 하지만	雖圓厚之久長兮
가슴 아프다, 다시 만날 때 언제인가	痛更覲之何時
내 가슴 속 쓰라림은 괴롭거니와	疚余中之酸楚兮

한없는 슬픈 마음 지니고 사네	銜袞袞之情悲
남기고 간 어린 아이 무릎 위에 안으니	抱遺雛於膝上兮
눈물이 철철 턱에 고이네	淚浪浪其交頤
컴컴한 안방에 먼지 쌓이고	洞房黶昧以塵凝兮
바람은 서서히 방장 흔드네	風徐徐以振帷幄
비단 살창 열어놓고 탄식하니	關綺疏以喟息兮
목소리와 얼굴 아득하여 접할 길이 없네	邈聲容之不可接
정원 매화에 봄비 머물러 있어	逗春雨於園梅兮
방불한 정신을 보존하였네	存精神之彷彿
지금은 어둡고 빛 없이	時曖曖其曠曄兮
해는 서둘러 서쪽으로 지네	曜靈俄而西沒
가슴 속 끓어올라 불 지른 듯하니	情涸沸以若炊兮
참담한 반약의 아내 잃은 답답한 마음	慘潘懷之忤鬱
아, 선한 이에게 복 내리고 음란한 이에게 재앙 내림은	噫福善禍淫
그 이치 또한 감감하네	理又玄玄
(중략)	
하늘은 어찌 하여 나에게	天胡使我
갑자기 아내 잃어 고분 고통 갖게 하는가	忽鼓子休之盆
정녕 푸른 하늘 믿기 어려워	信蒼高之難諶兮
마음 슬프고 답답하며 억울하여 못 견디겠네	中悶瞫而煩冤 ¹¹⁾
(후략)	

위의 <의자도부>에서는 진양유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해 느낀 깊은 슬픔 등을 적었는데, 박상은 아내를 잃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潘岳과 같다고 하였다. 반약은 쫘나라의 시인으로, 아내의 죽음 뒤에 그를 애도하는 시 <悼亡詩> 3수를 지은 바 있다. 그리고 “갑자기 아내 잃어 고분 고통 갖게 하는가[忽鼓子休之盆]”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莊子와 관련된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 惠子が 問喪하러 갔더니 장자가 다

11) 朴祥, <擬自悼賦> 일부분, 『訥齋集』 卷1,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14-18쪽,

리를 뺀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본래는 삶이란 것도 형체란 것도 없었는데, 이제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슬퍼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대답했다 한다.¹²⁾ 그래서 ‘고분 고통’을 아내의 상을 당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박상은 <의자도부>를 통해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다음 인용하는 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다. 시제는 <협곡도삼가>로, 총 세 작품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이다. 세 작품은 일어난 일을 시간적인 질서를 지켜 적었는데, 진양유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를 애도하는 마음이 상세히 담겨 있다. 우선 첫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날 그대와 부부된 것 생각하니	憶昔與君爲夫婦
흰머리 되도록 백년해로 기약했는데	期以百齡同白首
서생의 생계는 곤궁하기 그지없어	書生計活太酸寒
빗장 떼어 밥 짓고 머리 잘라 쌀 팔았지	炊爨翦髻墮窮白
어느 날 관직 얻어 조금 편안함 기뻐했고	一朝釋褐喜稍康
서울에서 빠듯하게 함께 생활하다가	就食京華共升斗
서로 이끌고 옛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提携歸來舊粉社
괴이하게도 직성이 양구를 만났구려	怪底直星丁陽九
울곡의 봄바람은 불현듯 따뜻함 멎었고	春風律谷忽罷暖
그윽한 동방을 굳게 닫은 지 오래 되어	洞房幽幽鎖閉久
밝은 달 밤 사랑하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	相思明月不見人
짧은 인연이 진양의 유씨만을 해쳤소	短分偏傷晉陽柳
아 첫 번째 노래여, 그 노래 최고로 괴로운데	嗚呼一歌兮歌最苦
끝없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아는 것이요	脈脈我懷君知否 ¹³⁾

총 14구로 이루어진 위 시는 총 네 부분으로 내용이 구분된다. 우선

12) 莊周, 『莊子』 「至樂」

13) 朴祥, <夾谷悼 三歌>1. 『訥齋集』 卷2,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28-29쪽.

1~4구에서 진양유씨와 처음 부부가 되었을 당시 백년해로를 기약했던 일과 가난한 삶을 헤쳐 나갔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 5~8구에서 박상이 관직을 얻어 기뻐하며 서울에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다가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적었다. 박상은 28세(1501, 연산군7) 때 정시 을과에 합격해 교서관 정자를 시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에 진양유씨가 생을 마감했는데, 5~8구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8구에서 “괴이하게도 직성이 양구를 만났구려”라고 말했는데, ‘직성’은 나이에 따라 그 사람의 운수를 맡았다고 간주된 별이름이고, ‘양구’는 양이 거둬지고 음은 없는 것으로, 만물이 交感하지 않아 困의 극한으로 천하가 어지러운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엄청난 災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다. 즉, 박상은 아내가 죽게 된 이유는 결국 운수가 사나웠기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9~12구에서 진양유씨가 묻힌 골짜기와 부부가 함께 지냈던 방의 분위기를 언급한 뒤에 아내가 없는 현실을 말하였다. 9구에서 말한 ‘律谷’은 진양유씨가 묻힌 골짜기를 말한다. 율곡은 본래 중국의 골짜기 이름으로, 날씨가 추워 오곡이 자라지 않았는데 제나라의 사상이 鄒衍이 律管을 불어 따뜻한 기운이 감돌게 하여 기장이 자랐으므로 黍谷이라 불렀다고도 한다.¹⁴⁾ 이어 13구에서 ‘최고로 괴롭다[最苦]’라는 말을 하여 <협곡도 삼가>를 지을 당시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밝혔다.

다음 <협곡도 삼가> 중 두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쁜 딸 둘이 들쭉날쭉 태어났으니	兩箇好女生參差
도화로 얼굴 세수하듯 착한 아이임을 알았네	用桃靨面知淑姬
지난해 또 기쁘게 의젓한 아들을 얻었으니	去年且喜得岐嶷
포대기 속 아이를 사람들은 기린이라 불렀지	襁褓人稱麒麟兒
하늘은 이를 남겨두지 않아 눈앞에서 떠났으니	蒼蒼不遺目前去
어찌하여 이미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가는가	夫何既與還奪之

14) 王充, 『論衡』 「寒溫」

황량한 무덤에 즐비하게 모자가 함께 있는데 荒陵纍纍母子同
 무덤가 나무엔 소슬하게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宰木瑟瑟西風吹
 아 두 번째 노래여, 그 노래가 대나무를 쪼개듯 하니 嗚呼再歌兮歌裂竹
 홀로 희미한 등불 마주한 채 새벽이 이미 지났네 獨向殘燈晨已移¹⁵⁾

이상 <협곡도 삼가> 두 번째 작품은 1~4구, 5~8구, 9~10구 등 총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우선 1~4구에서는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낳은 사실을 말했는데, 딸은 마치 복숭아꽃으로 얼굴을 세수 하듯 착한 아이라 했고, 아들은 남들 말을 빌려 기린아라 하였다. 이어 5~8구에서는 1남2녀 세 명의 아이들을 모두 잃은 내용을 적었다. “하늘은 이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낳은 아이들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 명의 아이들이 연이어서 죽었는데, 게다가 아내 진양유씨까지 세상을 떠 “황량한 무덤에 즐비하게 모자가 함께 있다”라 표현한 것이다. 박상은 <의자도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아이 저승에 가고, 무덤 온통 황폐해졌으니, 슬프다. 아내 또 뒤따라 죽고, 부를 수가 없으니, 슬프다. 나의 죄는 무엇이길래, 이 환난을 당하는가, 슬프다.[三兒登幽 塚半蕪兮噫 妻又繼逝 不可呼兮噫 我罪伊何 罹此虞兮噫]”¹⁶⁾라고 읊었는데, 곧 5~8구의 내용과 서로 비슷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9구에서 협곡도 노래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裂竹]’라 했는데, 이는 첫 번째 작품에서 말한 ‘최고로 괴롭다[最苦]’라는 것과 대비시켜 볼 수 있다.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라는 말은 대나무를 쪼개듯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최고로 괴롭다’와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라는 말은 슬픔을 대변하는 말인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구체적이며 강도가 더 세다고 말할 수 있다. 10구에서

15) 朴祥, <夾谷悼 三歌>2, 『訥齋集』 卷2,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28-29쪽.

16) 朴祥, <擬自悼賦> 일부분, 『訥齋集』 卷1,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14-18쪽.

“새벽이 이미 지났다”라 했으니,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슬픔과 애절한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음 <협곡도 삼가> 중 세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 그대여 이별을 어찌 그리 서둘렀는가	嗟君此別何忙忙
황천은 길이 막혀 찾을 수가 없네	泉重路阻不可尋
내 귓가에 응애 소리 남겨 주니	遺得呱呱傍我耳
은근하게 어루만지며 늘 근심한다네	慇懃拊摩長欽欽
배고프면 먹을 것 찾고 목마르면 마실 것 찾으니	飢當呼食渴覓飲
낮엔 한 그릇에서 먹고 저녁엔 한 이불 덮네	晝必同盂昏共衾
어미가 없어 외롭고 쓸쓸한데 아이가 누굴 믿겠는가	惻惻無母汝何恃
밤새도록 잠 못 들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네	徹夜不寐沾余襟
아, 세 번째 노래여 그 노래가 격렬하니	嗚呼三歌兮歌激烈
두견새 우는 오경 산속은 밤이 깊어가네	五更杜宇山正深 ¹⁷⁾

이상 세 번째 작품 역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1~4구, 5~8구, 9~10구 등 총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1~4구 내용에 따르면, 진양유씨는 세상을 뜨기 전에 갓난아이를 남겨두었다. 3구에서 “내 귓가에 응애 소리 남겨 주니”라 했으니, 아이는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1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과 진양유씨 사이에는 민제와 민중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이라 보면 된다. 다음 5~8구에서는 갓난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채웠다. 이제 갓난아이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박상이 온전히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 낮과 밤 동안에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입장이 되어 어미가 없기 때문이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 하였다.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것도

17) 朴祥, <夾谷悼 三歌>3, 『訥齋集』卷2, 『韓國文集叢刊』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28-29쪽,

슬픈데 어미 없이 어린 아이가 커야 한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래서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에서 그랬듯이 마지막 9구에서 협곡도 노래가 ‘격렬하다(激烈)’라 하였다. ‘격렬’은 “말이나 행동이 세차고 사납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최고로 괴롭다’라 하였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라 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작품에서는 ‘격렬하다’라 말한 것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구 내용에 따르면, 박상은 오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경은 한밤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를 이르니, 거의 밤을 샌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협곡도 삼가>를 살폈다. <협곡도 삼가> 작품은 진양유씨가 세상을 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니 아직 까지도 슬픔은 사그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세차고 사나워지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3) 하위 층위: 아우와 자식에 대한 애정과 기대

하위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로, <詠菊 次弟韻>, <中原北津 別舍弟歸關東幕>, <墨梅竹>, <黃山開泰寺水鐵臼 次弟韻>, <奉酬元沖和舍弟韻>, <次舍弟韻>, <秋夕翫月 舍弟茅亭置酒>, <聞舍弟接梅 索成二絕>, <金灘送舍弟入京>, <聞舍弟自掌令超拜執義 以詩爲賀>, <沃川守李弘幹 送栢子百箇 仍書問官況 且示舍弟昌邦詩律 次韻謝之>, <丁進士與子敏中 入俗離山讀書>, <癸未四月八日 敏齊生日有感>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계미사월팔일 민제생일유감>, <정진사여자민중 입속리산독서> 등은 장남 민제, 차남 민중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작품은 아우 박우와 관련된 것이다.

박상은 아우 박우를 늘 살뜰히 보살폈다. 15세 때 부친을 여의고, 25세 때 형 박정까지 잃어 형제라고는 이제 박우밖에 없었기에 늘 책임감

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우는 형 박상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박상의 나이 31세(1504, 연산군10) 4월에 진사시에 수석 합격을 하였다. 그리고 5월 18일 박상의 생일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친을 비롯해 친지와 벗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부친과 형 박정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집안의 잔치인지라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상과 박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박상이 박우에게 別給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적은 내용이 <別給六峯文>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별급육봉문>의 내용은 박상이 평소 효우를 몸소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다.¹⁸⁾

박상이 아우 박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시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박상이 박우와 관련해 지은 시 중에서 감성이 드러난 작품을 들어 보겠다. 우선 충주 목사 시절에 지은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가에서 한 잔 술 들며	江上一杯酒
너를 관동으로 보내노라	送君關以東
말은 모래벌판 풀밭에 세우고	馬亭沙磧草
사람은 바람 부는 학정에 앉네	人坐鶴汀風
맑은 물은 흥중으로 흐르고	白水流襟內
푸른 산은 안중으로 들어오네	靑山落眼中
표연히 형제가 헤어지니	飄然分棣萼
어느 때에나 봄을 함께 할까	春意幾時同 ¹⁹⁾

시제를 풀어보면 <충주 북쪽 나루에서 관동 막사로 돌아가는 동생을 전송하며>이다. 물론 박우는 벼슬살이를 하러 관동에 가는 것이다. 아마도 박우가 관동으로 떠나기 전에 이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박상을

18) 박상의 효우 실천에 대한 내용은 김동수의 저서(『호남 의리사상의 실천가 놀재 박상』, 동인출판문화원, 2016, 90-101쪽)를 참조할 수 있다.

19) 朴祥, <中原北津 別舍弟歸關東幕>, 『訥齋集』 卷3,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50-51쪽.

만나러 충주로 갔을 것이다. 박상과 박우, 두 사람은 강가에서 술잔을 마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 대화의 내용을 시 속에 담지 않았으나 박상은 형으로서 박우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이별을 해야만 했다. 위 시 미련 두 구에서 기약 없는 이별의 아쉬운 마음을 적어 당시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박상이 아우 박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시이다.

다음 시 역시 박상이 충주 목사 시절에 지었다. 박우가 장령 벼슬에서 품계를 뛰어넘어 집의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축하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감식 사심 없고 조정 공론 공정해	宸鑑無私朝論公
오랜 침체에 중에 있던 너를 집의로 초배했네	超君貳憲久沈中
해치관 쓰고 얼마나 북쪽 대궐 생각했던가	豸冠幾把心懸北
서벽에서 이제 동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네	西壁今敎座轉東
세 번째 임명이니 처신을 공손하게 하고	三命處身須罄折
장관의 주장이라 해서 부화뇌동 말라	長官持議莫雷同
호서에서 이 형의 심정 어찌 끝이 있으랴	雁行湖海情何極
분발해서 성상의 몸 지킨다는 말 들리게 하라	能振吾聞保聖躬 ²⁰⁾

집의는 조선 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이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책무는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直拜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²¹⁾ 이런 중요한 직책을 박우가 맡게 되었으니 형

20) 朴祥, <聞舍弟自掌令超拜執義 以詩爲賀>, 『訥齋續集』 卷2,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234-235쪽.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069>) 검색일 : 2026년 3월 10일)

박상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시를 지어 주었다.

수련에서는 아우 박우가 집의에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의 감식이 사심이 없고, 조정의 공론이 공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2구 내용을 통해 보면, 박우는 오랜 기간 동안 승진의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그 침체기를 벗어나 사헌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형 박상은 기쁜 마음이 컸다. 함련에서는 박우가 장령 벼슬에 있으면서 임금이 있는 북쪽 대궐을 생각했던 것을 언급한 뒤에 서벽에서 동벽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전통 시대 관청에 관리가 출근하면 장관이 정면에 앉고, 그 다음은 위계 순서에 따라 동·서로 갈라 앉는다. 동쪽에 앉은 사람을 동벽, 서쪽에 앉은 사람을 서벽이라 했는데, 사헌부의 집의는 동벽에 장령은 서벽에 앉았다. 그리고 다음 경련에서 관료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 1구에서 말한 ‘三命’이란 세 차례 벼슬이 승진하는 것으로, 벼슬이 높아질수록 공손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이는 『春秋左氏傳』昭公 7년 조에 “첫 번째 벼슬을 받자 머리를 숙였고, 두 번째 벼슬을 받자 몸을 굽혔으며, 세 번째 벼슬을 받자 허리를 굽히고는 길 가운데를 피해 담장을 따라서 달아났으니, 아무도 나를 모욕하는 이 없었지.”²²⁾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다시 말해 “세 번 임명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꽤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상은 여기에서 “처신을 공손히 하라”고 말한다. 벼슬이 높은 데에 오르면 오를수록 처신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더하여 장관, 즉 직책이 더 높은 사람이 주장한 것이라 하여 거기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라는 말도 한다. 아부를 해서 더 높은 관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법도 한데, 박상은 일반인이 생각

22) 左丘明, 『春秋左氏傳』昭公7年, “一命而僂, 再命而僇, 三命而俯, 循牆而走, 亦莫余敢侮.”

하는 말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신을 지킬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박상의 평소 성품이 드러난다. 박상은 불의와 부정에 대해 과감히 懲治·항거·비판을 했는데,²³⁾ 아우 박우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 2구에서 다시 한 번 “분발해서 성상의 몸 지킨다는 말 들리게 하라”는 당부의 말을 한다. 임금을 모시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 업무를 성실히 잘 처리할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시는 시제에 ‘축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작정 축하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형이 아우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박상은 박우와 같은 관료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시는 따라서 감성이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행간을 따져 읽어보면 그 속에 박상이 아우 박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지를 느낄 수가 있다.

박상은 두 아들 민제, 민중과 관련해 각각 한 편씩 총 두 편의 시를 남겼다. 두 작품을 모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석가의 생일에 너는 동쪽에서 태어났으니	西仙生日汝生東
	네 어머니의 수고가 옆구리로 낳은 것과 같았지	爾母劬勞誕脅同
	다 큰 지금 네 어머니만 보이지 않으니	長大祇今偏不見
	늘그막 노인의 눈물 슬픈 바람에 흩뿌리네	暮年衰淚灑悲風 ²⁴⁾

②	내일 아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니	明日童烏同入山
	속리산은 백운 사이로 높이 솟았으리	俗離高截白雲間

23) 박상이 불의와 부정에 대해 징치·항거·비판을 한 내용은 김동수의 전거서, 101-168쪽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24) 朴祥, <癸未四月八日 敏齋生日有感>, 『訥齋續集』 卷1,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174쪽,

인 셈이다.

3. 감성표출의 미학적 의미

앞 2장에서 박상의 가족시를 총 세 층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들 층위의 작품은 감성 양상도 차이도 있으면서 각 작품마다 감성 표출의 강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층위에서 논의한 작품 <전조고묘>는 의례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반면, <몽백씨>는 형 박정이 죽은 뒤에 형 꿈을 꾸고 지은 시로,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서 그리운 마음을 표출하였다. 그래서 <전조고묘>와 <몽백씨>의 감성의 표출 강도를 따졌을 때 당연히 후자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층위에서 논의한 작품 <협곡도 삼가>는 여타 진양유씨와 관련한 또 다른 작품과 대비했을 때 그 감성 표출 강도는 압도적이라 말할 수 있다.²⁶⁾ 마찬가지로 세 번째 층위에서 논의한 아우와 아들과 관련한 작품의 감성 표출 강도를 대비시켜보면, 대체로 모든 시가 비슷한 수준의 강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은 15세 때 부친을 여의고, 25세 때는 형 박정이 세상을 뒀으며, 이어 1남2녀를 잃은 뒤 33세 때 첫 번째 부인 진양유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와 같이 33세 때까지 집안에 우환이 연달아 있으면서 가슴 속에 ‘슬픔’이라는 감성을 늘 간직하고 살았는데, 특히 형과 진양유씨에게 느낀 감성 정도는 다른 사람에 대비시켰을 때 남달랐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슬픔의 감성이 가장 강하게 표출된 작품은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인 셈이다. 따라서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은 박

26) 가령, 진양유씨와 관련한 작품으로 <記夢> 시가 있다. 이 시는 박상이 그의 나이 52세 때 사도시 부정 자리로 옮기며 子春縣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꿈에 진양유씨가 나타나 지었다.

상의 감성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는 기준 잣대가 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을 통해 박상은 자신의 감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특히, 이 두 작품 중에서 <협곡도 삼가>는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를 각각 ‘최고로 괴롭다[最苦]’,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裂竹]’, ‘격렬하다[激烈]’라 하여 슬픔의 강도가 최고라는 것을 말하였다. 『논어』 「八佾」 20장에 “공자가 말하기를 『시경』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화를 해치지 않는다.”²⁷⁾라 말한 이래로 전통 시대 유학자들은 속으로 아무리 슬프더라도 시로 나타낼 때 슬픔을 어느 정도 여과 또는 희석시켜 나타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박상이 지은 <협곡도 삼가>는 슬퍼하면서 화까지 해쳤다는 느낌을 안겨준다. 즉, 너무 슬픈 나머지 화까지 해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 하고 판단된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떴으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면, 박상은 시를 통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을 잘 실천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전통 시대의 사람 중에 박상의 시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시를 비평한 사례가 있다. 그 중에서 미학적인 관점에서 비평한 경우를 몇몇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놀재 박상, 호음 정사룡, 소재 노수신, 지천 황정육, 간이 최립 같은 이들은 險穽하고 奇健함을 장기로 삼는다.²⁸⁾

② 예컨대 점필재의 蒼古함과 놀재의 奇崛함과 용재의 노련하고 (중략) 唐詩를 공부하였으나 문세가 약하고 깊이가 얕아서 의미가 없는 자

27) 『論語』 「八佾」,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28) 申欽, 『象村稿』 卷52, 「晴窓軟談」 下, 『韓國文集叢刊』 71-72, 민족문화추진회, 1996, 1083쪽, “如訥齋朴祥·湖陰鄭士龍·蘇齋盧守愼·芝川黃廷彧·簡易崔崑, 以險穽奇健, 爲之能.”

에 비하면 본래 진실로 나온 것이니, 어찌 당시가 아니라 하여 이것을 폐할 수 있겠는가.²⁹⁾

③ 공의 시는 웅장 강직하고 기이하고 예스럽다.³⁰⁾

④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詩學은 대대로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읍취헌 박은 天成과 놀재 박상의 沈鬱함은 모두 盛世의 國風, 大雅, 小雅의 遺風을 지니고 있으니, 후대에 한림원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 하고, 두 사람의 문집을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³¹⁾

①은 신희, ②는 이의현, ③은 이궁익, ④는 정조가 각각 비평한 글이다. 이들 네 사람이 비평한 글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박상의 시를 미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규정했는가이다. 신희는 박상의 시가 정사풍, 노수신, 황정욱, 최립 등의 시와 함께 “힘피하고 기건함을 장기로 삼는다”라 하였다. ‘힘피’는 “힘벽하고 화려하다”라는 뜻이고, ‘기건’은 “기이하고 굳세다”라는 의미이다. 이의현은 박상의 시가 기골하다 말하며, “唐詩를 공부하였으나 문세가 약하고 깊이가 얕아서 의미가 없는 자에 비하면 본래 진실로 나온 것이다.”라 말한 뒤에 “어찌 당시가 아니라 하여 이것을 폐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기골’은 “기이하고 산이 우뚝 솟은 듯이 크다”는 뜻이다. 이의현의 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를 언급했는데, 박상이 마치 당시와 무관한 듯한 말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이의현의 당시 운운은 『놀이재집』 서문을 쓴 박우의 언급과 배치되

29) 李宜顯, 『陶谷集』 卷26, <題八家律選卷首>, 『韓國文集叢刊』 181, 민족문화추진회, 1997, 1088쪽, “如估畢之蒼古, 訥齋之奇崛, 容齋之老實, (中略) 比之業唐而綿淺無意味者, 固自有勝, 何可以非唐而廢之哉?”

30)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8, 「己卯黨籍」, “詩語雄剛奇古,”

31) 正祖,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4, 『韓國文集叢刊』 262, 민족문화추진회, 2001, 5745쪽, “我東詩學, 世不乏人, 而挹翠軒朴間之天成, 訥齋朴祥之沈鬱, 皆盛世風雅之遺, 非後來擅名詞垣者之比也, 兩集遂命刊印以進.”

는 측면이 있다. 박우는 박상의 아우로서 어느 누구보다 박상의 시를 잘 알았던 사람으로, “風雅·『離騷』·李白·杜甫의 시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놀재의 시를 능히 이해하기 어렵다.”³²⁾라 하였다. 두 보와 이백은 모두 盛唐 때의 문인인데, 박우는 이들 두 문인의 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박상의 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내용을 따르면, 박상의 시는 당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③ 글을 통해 이공익은 박상의 시가 웅장기고하다라 하였다. ‘웅장’은 “웅장하고 강하다”라는 뜻이고, ‘기고’는 “기이하고 예스럽다”라는 의미이다. 이 이공익의 비평은 앞의 신희, 이의현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한편, 정조는 ④ 글을 통해 박상의 시가 침울하다라 하였다. ‘침울’은 “걱정·근심 따위로 밝지 못하고 우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박상의 시를 후대인들은 다양한 미학적 용어으로써 규정했는데, 다시 그 용어를 나열해보면 ‘힘피’, ‘기건’, ‘기굴’, ‘웅장’, ‘기고’, ‘침울’ 등이다. 이렇듯 여러 미학적인 시 비평 용어의 의미는 같은 듯하나 다른데, 한 가지로 통일되지 못한 것은 박상의 시를 각자 읽었는데, 본인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앞 1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의 시는 총 620제 1,200여 수에 이른다. 이들 시를 네 사람 모두 읽었을 것인데, 각자 다가온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³³⁾

32) 朴祥, 「訥齋先生集序」(朴祐) 『訥齋集』,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10쪽, “非深於風雅騷李杜者, 則難能會訥齋之詩矣.”

33) 이는 현대 연구자들 사이에 박상 시의 시풍을 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박상 시의 시풍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박준규이다. 박준규는 전개논문 180면에서 박상의 조카 朴淳이 “盛唐의 李白을 숭상하며 學唐의 風潮를 일으킨 것은 놀재를 비롯하여 김정 등의 감화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에 민병수는 그의 저서(『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239-257쪽) 6장 5절 ‘唐詩 성향의 대두’ 부분에서 박상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종묵은 그의 저서(『해동강서시파연구』, 태학사, 1995)에서 박상을 송시풍의 한 줄기인 해동강서시파의 일원으로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박상 시의 시풍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박상의 가족시 중에서 감성 강도가 강하다 말할 수 있는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을 혹시 미학적 시 비평 용어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사람의 미학적 용어 ‘협곡’, ‘기간’, ‘기굴’, ‘웅강’, ‘기고’, ‘침울’ 등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침울’이 근접하다 말할 수 있다.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은 슬픔이라는 감성이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함과 침울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박상은 士禍期를 관통해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실천정신이 뚜렷했던 사람이었다. 그 실천정신이 공식적으로 발휘된 상소문이 곧, <請復故妃愼氏疏>인데, 이 글을 임금께 올림과 동시에 조정 대신들은 격론을 벌여 결국 1519년(중종14) 기묘사화의 遠因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³⁴⁾ 당시 <청복고비신씨소>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은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상이 金淨과 함께 이 상소문을 올렸던 것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박상은 평소에도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드러내었다. 가령, 기묘사화를 일으킨 주동자 沈貞의 별장 逍遙堂에 쓴 시 <題逍遙堂排律四十韻>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박상은 심정을 비판하는 시를 썼는데, 결국 그것을 안 심정이 크게 화를 내며 뜯어서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³⁵⁾ 사화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출세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지 따지지 않고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상은 그런 것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내직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으나 점차 중앙 정치와 멀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34) 박상의 실천정신과 <청복고비신씨소>에 대한 연구는 윤사순의 논문(「조선조 의리사상 형성과 놀재」, 『놀이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15-27쪽)을 참조하였다.

35) 張維, 『谿谷集』 卷3, <書逍遙堂序後>, 『韓國文集叢刊』 92, 민족문화추진회, 1993, 130쪽.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도 이런 평소 성품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형과 아내가 죽어 슬픈데, 그런 감정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밖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사실 같은 가족시이지만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은 <전조고묘> 작품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 이유는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이 여과 없이 감정을 밖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감성의 스스럼없는 流露는 곧, 작품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주는데,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시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표출의 미학적 의미는 다시 말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솔직함이 작자의 평소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박상의 가족시 총 16제 20수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원만히 끝난다면,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의 전반적인 면모와 함께 조선 중기를 살았던 사람의 삶이 시 작품 표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족시는 박상을 기준으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시 세 층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위에 자리하는 조부 박소와 형 박정과 관련한 작품으로, <전조고묘>, <몽백씨> 등이 해당하였다. 이들 작품을 통해 박상은 감사와 그리움의 감성을 드러내었다. 두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과 수평적 위치에 놓인 진양유씨와 관련한 작품으로, <협곡도 삼가>가 해당하였다. 이들 작품을 통해 박상은 슬픔과 애절한 감성을 드러내었다. 세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아래에 자리하는 아우 박우와 두 아들 민제

와 민중과 관련한 작품으로, <영국 차제운>, <중원북진 별사제귀관동막>, <묵매죽>, <황산개태사수철구 차제운>, <봉수원충화사제운>, <차사제운>, <추석완월 사제모정치주>, <문사제접매 색성이절>, <금탄송사제입경>, <문사제자장령초배집의 이시위하>, <정진사여자민중 입속리산독서>, <계미사월팔일 민제생일유감>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상은 이들 작품을 통해 사랑과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이들 가족시를 살펴본 결과 감성의 강도가 최고로 센 작품으로는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라고 결론을 지은 다음에 이들 시가 미학적 비평 용어 중에 ‘침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특히, 감성을 스스로없이 나타내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데 이는 결국 박상이 평소 감정을 숨기지 않고 행동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박상의 가족시를 감성의 층위별로 체계화하고, 감성 표출과 미학적 의미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朴祥, 『訥齋集』, 『韓國文集叢刊』 18-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申欽, 『象村稿』, 『韓國文集叢刊』 71-72, 민족문화추진회, 1996.
李肯翊, 『練藜室記述』
李宜顯,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민족문화추진회, 1997.
張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민족문화추진회, 1993.
正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2, 민족문화추진회, 2001.

2. 단행본

- 김동수, 『호남 의리사상의 실천가 놀재 박상』, 동인출판문화원, 2016.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박명희, 『박상의 생각, 한시로 읽다』, 도서출판 온샘, 2017.
이종묵, 『해동강서시과연구』, 태학사, 1995.

3. 논문

- 박준규, 「訥齋 朴祥의 詩文學論攷」, 『놀재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150~167쪽.
윤사순, 「조선조 의리사상 형성과 놀재」, 『놀재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15~27쪽.

4. 인터넷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069>)

<Abstract>

The Layers of Emotion and the Aesthetics of
Emotional Expression in Nuljae Park Sang's Family
Poetry

Park, Myoung-Hui*

This study examines the poems of Park Sang (Nuljae) that concern his family, including his grandfather Park So, elder brother Park Jeong, wife Lady Jin of the Jinyang Yu clan, younger brother Park U, and his two sons Minje and Minjung. In total, Park Sang composed twenty poems across sixteen titles related to these family members.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se works as “family poetry” and analyzes them accordingly. Through this approach, it aims to elucidate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expression in his family poetry and to demonstrate that the lives of mid-Joseon literati (sarim) were closely connected to poetic creation.

Park Sang's family poetr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hierarchical layers according to the familial relationship: the upper level (grandfather and elder brother), the parallel level (wife), and the lower level (younger brother and sons). Each layer reveals distinct emotional qualities and varying intensities of expression. In the upper level, gratitude toward the grandfather and longing for the deceased elder brother are predominant. In the parallel level, profound grief following the death of his wife is intensely expressed. In the lower level, affection and expectations toward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is younger brother and sons are conveyed through relatively stable emotions. In particular, the poems “Mongbaekssi” and “Hyeopgokdo Samga” exhibit especially strong emotional expression, encapsulating the poet’s distinctive emotional sensibility.

Furthermore, based on existing critical evaluations, this study identifies “melancholic profundity” as a key aesthetic characteristic of Park Sang’s poetry. This feature is associated with a relatively direct expression of sorrow, distinguishing his work from the traditional poetics of emotional restraint.

In conclusion, Park Sang’s family poetry demonstrates a close integration of personal experience and emotional expression, and thus constitutes a significant source for the study of emotionality in mid-Joseon literati literature.

Key Words: Nuljae Park Sang, family poetry, Park Jeong, Park Woo, <Chongbokgobisinssiso>, <Mongbaekssi> and <Hyeopgokdo a Samga>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20일